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1. 통합·개편 추진배경은?
2. 통합·개편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은?
3. 예상 기대효과는?

## 1. 통합·개편 추진배경은?

- 기존의 산학협력 지원 사업\*들은 사업간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사업간 칸막이식 운영\*\*과 유사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
  -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 \*\* 학부와 대학원간 단절, 공과대학과 비공과대학간 단절, 개별 프로그램간 단절 등
- 또한, 단절적·분절적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과 특정학부(과)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대학 체질 자체를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개편하는데 한계

## 2. 통합·개편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은?

아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추진방안(시안)으로 더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임

### ▣ 기본방향

- 대학 체제개편과 대학 및 산업체간의 연계를 강화해 산학협력 지속가능성을 제고
  - (대학內) 단편적 프로그램 단위 지원방식에서 종합적·체계적 패키지형 지원으로 전환
  - (대학外) 지역 산업체의 참여 유인 제고 및 수요 지향적인 산학협력 추진
- 다양하고 특색있는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창출·확산
  - 기존의 분절적 산학협력 지원 사업을 통합하되, 지원내용을 다양화하고, 대학의 자율적·전략적 사업추진을 보장

### ▣ 주요내용

- 현재 추진중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역거점 연구단 육성사업 등을 '12년부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개편

'11년도			⇒	'12년도		
구분	사업비	지원규모		구분	사업비	지원규모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1,000억원	20개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300억원	50개교 내외
산학협력중심대학	310억원	17개교				
지역거점연구단	145억원	7개교				
계	1,455억원	44개교				

- 산학협력 선도대학은 기술개발 및 이전 · 사업화 등을 중점 추진하는 기술혁신형 대학과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현장밀착형 대학으로 산학협력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 대학을 선정할 계획

〈 산학협력 유형구분(안) 〉

구분	목표		지원 대상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술혁신형	▪혁신적 연구인력 및 창의적 기술 인재 양성	▪원천 · 혁신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 · 이전	학부 + 대학원
현장밀착형	▪창의적 기술 인재 및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현안 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지도 · 자문	학부 중심

- 전체 선정 대학(50개교) 중 70%(35개교 내외)는 광역경제권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선정, 나머지 30%(15개교)는 전국단위 경쟁(수도권 제외)을 도입하여 우수한 산학협력 역량을 보유하고, 혁신적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한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매년 평균 약 45억원 내외(기술혁신형 대학 평균 60억원, 현장밀착형 대학 평균 40억원)를 지원
  - ※ 기존 3개 사업 추진대학(36개교) 중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
- 사업 초기부터 컨설팅을 통해 각 대학의 사업 추진 및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실시
- 대학이 당초 제시한 사업계획 이행 현황 및 실적 점검을 위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추진 2년 후에는 단계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진한 대학은 지원을 중단

### 3. 예상 기대효과는?

- 지역대학의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성과가 지역산업의 고용 및 기술혁신으로 이어짐으로써,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계기로 작용
-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 기능인력부터 실무 연구인력까지 전주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과 인력양성 간 연계도 더욱 강화
-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수 인재유출 및 취업 미스매치 등의 문제에 직면한 지방대학이 산학협력으로 활로를 모색할 계기 마련
  - ※ 사업개편 전후 비수도권 지원대학 수 및 지원금 변화 : 31개교, 1,347억원 → 43개교, 2,000억원 내외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과(02-2100-6948) 또는 홈페이지(www.mest.go.kr)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철 지역발전위원장, 시·도 방문, 현안 의견 교환**

홍철 지역발전위원장은 취임인사 및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시·도를 방문하였다. 4월 18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6월 13일 강원도까지 서울·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를 각각 방문하여 광역단체장과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각 지역 혁신도시, 4대강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 **지역발전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착수**

지역발전위원회는 5월 24일 '2011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자문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2기 지역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설명과 2011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평가제도 개선방안, 평가자문단 운영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워크숍 논의내용을 토대로 지역발전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 개최**

지역발전위원회는 5월26~27일 광주에서 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시도 관계자 등 광역경제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유관기관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추진 방향, 지역인력 수급 문제 진단 및 해소방안, 광역경제권 추진기구(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제와 참석자들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 **광역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지역발전위원회는 6월16~17일 대구에서 광역위 사무국 직원들의 연구 및 업무역량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지역 산업 발전방향, 광역위와 광역거버넌스에 대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5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홍철 위원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아울러,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참석자들간 분임토의도 진행되었다.

